

특집논문

『홍재일기(鴻齋日記)』로 본 동학농민혁명 이후의 사회변동*

조 재 곤(서강대학교 학술연구교수)

목차

1. 머리말
 2. 오가작통제 시행과 을미의병에 대한 인식
 3. 을사늑약과 을사·정미의병에 대한 인식
 4. 일제의 국권 침탈에 대한 인식
 5. 맺음말
-

1. 머리말

『홍재일기(鴻齋日記)』는 전 7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일기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부안 지역에서 생활했던 농촌지식인 기행현(奇幸鉉, 1843~?)이 1866년 3월 10일부터 1911년 12월 30일까지 45년간 기록한 것이다. 일기에서 서술하고 있는 시기는 병인양요 무렵부터 시작해서 경술국치로 인한 대한제국 멸망 직후까지이다. 기행현의 일기는 근대 이행기 정치사회 변동은 물론 경제 상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자료로, 동학농민혁명을 전후로 한 부안과 고부지역 사람들의 삶의 내용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¹ 특히 주목되는 내용으로, 1894년 4월 9일 자 일기에 “동학인이 지나간 곳은 풀 한 포기 밟히지 않고 벌레 한 마리 죽지 않았다”라고 하여 동학농민군의 생명 존중 사상을 여실히 알 수 있다. 뒤늦게 『홍재일기』의 존재가 알려진 이후 전북대학교 이재연연구소에서 전라북도 와 부안군의 지원을 받아 이를 탈초하고 2권의 책으로 번역 발간하였다. ‘홍재일기로 본 부안의 사회상’이라는 주제로 2022년 11월 학술세미나를 완료하였다.

이 일기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전라도 부안 지역은 물론 국내 상

* 이 논문은 2023년 부안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의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1 그간 『홍재일기』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논문과 번역서가 제출된 바 있다. 김철배, 「전라도 부안 士族 奇幸鉉의 鴻齋日記와 19세기 후반기 부안의 경제사정」 『전북사학』 46, 2015; 김영준, 「19세기 후반 전라도 부안현 호구 및 결가 조사의 실제적 양상-남하면 훈집(訓執) 기행현의 홍재일기(鴻齋日記)를 중심으로-」 『전북사학』 53, 2018; 이선아, 「19세기 부안 儒生 奇幸鉉의 鴻齋日記와 동학농민혁명의 실상」 『동학학보』 50, 2019; 「19세기 부안 유생 기행현의 홍재일기와 秘訣의 유행」 『동학학보』 65, 2023; 전북대학교 이재연연구소, 『(국역) 홍재일기(상·하)』, 문화발전소, 2022.

황을 폭넓게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기록자료로 판단된다. 특히 1894년 동학농민혁명 중심지에 거주하면서 동학농민군, 관군, 일반백성, 상인, 민보군, 유생 등 다양한 사람들의 활동에 관한 기록은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홍재일기』에서 담고 있는 주요 사건과 내용을 간략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도	주요 사건 내용
1866	만동묘 철폐(1865), 경복궁 중건, 병인양요
1867	오가작통, 가뭄, 모기, 유행병, 당백전의 폐해, 경복궁 이어
1868	당백전, 오페르트 남연군묘 도굴 사건, 오가작통, 서원철폐
1869	원납전(결두전), 경복궁 중건, 대기근
1870	대기근, 동포(洞布) 징수
1871	동포, 세미난봉(稅米難捧), 가뭄, 신미양요, 의복제도 개혁
1872	가뭄, 물가양등, 우역(牛疫)
1873	오가작통, 만동묘 복설 상소(최익현)
1874	동포
1876	흉년
1881	척왜복합상소(신사척사소), 홍재학 상소
1882	백낙관 상소, 임오군란, 홍선대원군
1883	임오군란의 후유증(하나부사, 오장경), 당오전, 대원군
1884	당오전, 청국 군대, 복제개혁, 갑신정변
1885	갑신정변의 여파, 대원군
1886	화적
1887	당오전, 복제개혁, 호환(虎患)
1888	괴설(怪說), 복제개혁
1889	광양민란
1890	동학(처음 언급), 나주민란, 군전사 김창석
1891	나주민란, 김창석, 방곡령
1892	군전, 동학인
1893	동학인

1894	고부봉기, 백산봉기, 동학농민군 활동과 확산, 청일전쟁
1895	민보군, 농민군 체포 처형, 오가작통 시행, 을미사변, 토역방문(討逆榜文), 의병과 동학, 단발령
1896	의병, 피란
1897	유인석 의병, 동학 재봉기설, 서교(西敎,영학당), 대한제국 선포
1898	동학여당(東學餘黨) 체포, 제주민란(제1차), 서교, 최시형 체포, 독립협회, 영학(英學)
1899	독립협회, 기씨 재실 복원(동학피해), 영학당, 군전, 동학여당 체포, 상무사(商務社)설치
1900	동비(東匪)체포 처단, 상무소(商務所), 활빈당(活貧黨)
1901	제주민란(제2차)
1902	백산(白山, 전봉준 회상), 동학, 칭경(稱慶) 40주년
1903	송성건의소(頌聖建議所), 석고(石鼓), 오가작통, 동비잔당, 파원(派員)의 폐해
1904	러일전쟁, 일본인의 약탈, 인부동원, 동비 체포처단, 일진회(一進會), 오가작통
1905	일진회, 진보회, 오가작통, 을사늑약, 의병
1906	이남규 상소, 송병선, 일진회, 천도교, 의병, 기생 산홍과 이지용
1907	국채보상운동, 고종퇴위, 의병
1908	의병, 단발
1909	의병,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살해
1910	종묘와 대궐철폐, 경술국치, 기우만 자결, 일본인 관광, 천장절
1911	일본인 측량, 토지매입과 거주, 일본인 농업회사, 일본 유학, 민적조사

* 1875(을해)~1880(경진)년의 일기는 한 해를 단 한 줄씩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홍재일기』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제6책과 제7책인 1894년 동학농민혁명 이후부터 일제 강점기에 이르는 기간 한국 근대의 정치 사회변동에 초점을 맞추어 내용을 소개 분석하고자 한다. 즉, 1895년부터 1911년까지의 일기 기록에서 동학농민혁명 이후 변혁운동의 추이와 ‘동비여당’ 색출과 오가작통제 시행, 을미사변과 의병봉기, 을사늑약과 순

국 자결, 을사·정미의병의 동향, 일진회와 친일 세력, 일제의 한국 토지 침탈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할 것이다.

2. 오가작통제 시행과 을미의병에 대한 인식

1) ‘동비여당’ 색출과 오가작통제 시행

1894년 11월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주력이 대패한 이후 동학농민군은 급격히 와해되었고 중앙에서는 양호 도순무영을 비롯한 정부군을 지방에서는 전라감영 군과 유생들이 주도하는 민보군 등을 동원하여 패퇴한 이들의 수색과 체포 처형에 집중하게 되었다. 기행현이 거주하는 전라도 부안 지역도 예외가 없었다. 이 지역 패잔 동학농민군 토벌을 위한 준비장소는 유희소(儒會所)였다.

『홍재일기』를 보면 부안 지역에서는 1895년 1월 4일부터 이른바 ‘동비여당(東匪餘黨)’ 체포가 시작된다.² 즉, 향교 유희소에 가보니 지역의 선비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백사준(白士俊), 김도삼(金道三), 이상용(李相用), 손수일(孫守一), 김석윤(金石允), 곽덕언(郭德彦), 신명언(辛明彦) 등 ‘동학의 거괴(巨魁) 7인’을 아직도 체포하지 못한 일로 소모영(召募營)의 관칙(關飭)이 도착하여 향교에서 이들을 체포할 방도를 모의하고 별유사(別有司)를 정하고 향중(鄉中)의 유생 20인이 이들 거괴와 이전의 옛 동학당을 체포하기로 정하였다는 것이다.

2 『鴻齋日記』, 1895년 1월 4일 자.

일기에 보이는 1895년 1월 5일부터 1904년 5월 15일까지 동학농민군 체포와 처단 등과 관련한 사례를 간략히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년	월일	내용
1895	1. 5	거괴 곽덕언(郭德彦), 송성구(宋成九)를 체포
	1. 7	옛 동학 박문표(朴文表) 외 김봉보(金奉甫)와 이화일(李化一)도 잡혀감
	1. 8	“면회소에 갔는데 먼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죄인을 잡아들여야 하는데 한 사람도 체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온 고을 각 면이 모두 그렇다고 한다.”
	1. 10	신소룡(申小龍)이 고창에서 붙잡혔고 김도삼도 붙잡혀옴
	1. 11	감영의 감결에 옛 동학도[舊徒] 가운데 사람을 부추겨 미혹하거나 새 동학도[新徒] 중에서 어지럽혀 폐단을 일으키는 자는 일일이 잡아들이도록 함.
	1. 12	박문표, 김봉보, 송성구를 남문 밖에서 총살
	1. 15	수성청(守城廳)의 사통(私通)에 역적 박문표가 이미 죽었으니 시친(屍親)에게 찾아가도록 하고, 문표의 동생을 오라고 분부. 문표의 아들 성수(成守)가 정소하자, “과오를 뉘우치고 스스로 새로워져서 생업에 종사하고 주검을 묻어 주도록 하라”고 하여 시체를 찾아와서 빈소를 차림.
	1. 17	수성군 3명이 마을에 도착하여 닭 5마리, 계란 30개를 대군이 사용할 것이라는 관의 명령을 보여줌. 일본 군사 72명, 경군 2명이 입성.
	1. 24	무장(茂長)의 전 장령 김수형(金秀馨)이 부안 향교에 통문하여, 동학 가운데 구 동학도[旧道]이든 신 동학도[新道]이든지 소란을 일으키는 자는 뿌리를 뽑아 후환을 막는데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함.
	1. 26	수성군이 와서 강일봉(姜日鳳)을 붙잡았는데 나이가 어려서 가엽게 여겨 풀어줌.
	1. 29	건선면 목하리에 사는 다섯 사람이 죄인 장가(蔣哥)를 잡았다가 놓쳐 수색 중임.
	2. 12	동학 9명을 남문 밖에서 총살.
	2. 13	향교로 가서 의전(義錢) 3냥을 내어 주고 저녁에 돌아옴.

	2. 22	시장에서 동학 7명을 총살.
	2. 26	요즘 동학을 매우 심하게 체포하고 있다고 함.
	3. 18	동학 김석윤(金石允)이 총살됨
	3. 23	“우리 고을의 동학 거괴 백사중(白士仲), 손수일(孫秀一), 이상용(李尙用), 신명언(辛明彦), 신공선(辛公先) 다섯 놈을 체포하지 않을 수 없으니 백성들은 경동(驚動)하지 말고 농업과 상업에 편안히 임하라”고 관에서 전령함.
	4. 11	동학인 전명숙(全明淑), 손화중(孫化中), 김여중(金汝中) 형제가 한양에서 내려왔다고 함.
	4. 18	‘비류(匪類)를 귀화시켜서 편안하게 하라’는 전령을 봄
	5. 22	본읍의 동학 거괴로서 나주에서 상경하여 살아 돌아온 김여중을 잡아 오기 위해서 노대규(盧大圭)를 보내고, 팔문(八文)을 때려죽인 이규노(李奎魯)와 이성오(李成五)를 잡아옴.
	5. 23	김여중의 형제가 달아나자 순찰사가 그 종제를 잡아들여 장 10대를 때리고 풀어주면서, “너의 종형을 감영으로 보내 지수하라”라고 함. 이규노와 이성오를 잡아들여 엄히 매질하고 다시 가둠.
1896	9. 10	김방환이 갑오년에 동학란이 일어났을 때 처자를 데리고 제주로 들어갔다가 을미년에 ‘동비’가 소탕된 이후에 돌아옴.
1898	1. 30	정읍의 동학인 6명이 담양에서 체포됨.
	4. 29	붓장수(筆商) 최동익(崔東益)이 와서, “동학의 법사(法司) 최제우(崔濟愚; 최시형의 오인)가 강원도에서 붙잡혔다고 말함.
1899	5. 3	병정들이 와서 임응문(林應文)을 잡아갔는데, 병대장(兵隊長)이 착오가 있었던 것에 대해 무수히 사과함.
	5. 5	전주 병대주진장소(兵隊駐陣長所)에서, ‘동비(東匪)의 여약(餘藥)을 이제 체포해야 되는데 이렇게 농사철이 되어 민폐가 될까 걱정되었기 때문에 포졸을 철수하니 해당 면과 해당 동에서 붙잡아 올리라’라고 훈령함.
	5. 6	내요촌에 사는 백치현(白致賢)의 아들을 병정들이 잡아갔고 병정 30여 명이 변산에 들어감.
	5. 11	“동학 무리가 다시 일어났다. 과수를 고부, 정읍, 태인에서 거의 모두 붙잡았기 때문에 병사를 철수하니 남은 종자는 해당 동네에서 붙잡아 올리라”라는 관찰부 훈령.

	7. 1	“각 군의 수괴를 기어이 체포하고 나머지 양민에게 효유하여 편안히 거접하라”라는 관찰부의 훈령.
	9. 13	“어떤 무리들이 종인(從人)이라고 가탁(假託)하고 마을에 몰래 다니면서 돈과 재물을 토색하거든 결박하여 붙잡아 올려라”라고 안렴사 이도재가 훈령.
1900	2. 29	전주영에서 동학을 잡아서 죽임.
	3. 4	본군 검관인 만경현감 손병호(孫秉浩)가 “동학을 잡아들이는 일을 중지하라”라고 한 훈령이 도착. 순찰사가 ‘순찰사의 종자(從者)라고 하면서 폐단을 일으키는 자를 결박하여 잡아올리라’라고 훈령.
1901	6. 20	“내부(內部)에 말미를 청하여 근친(親親)하러 발행했을 때 그 사이에 혹시 토포가 있으면 시찰관, 종인 등이 출역하되, 본군 경내에 사는 자는 잡아 가두고 이름을 지적하여 서리부(署理府)에 보고하고 돌아와 조처하라”라고 관찰부에서 훈령.
1902	5. 4	동학이 다시 일어나서 감영에서 병정을 풀어 붙잡기는 하지만 동학 속에서 반드시 난의 근본이 될 것이고 태인에 사는 김문행(金文行)은 비록 잡혀 간했지만 반드시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라고 세상사를 이야기함.
1903	11. 4	“충청도의 이름 모르는 민가(閔哥), 금구의 홍종한(洪鍾翰)과 이인규(李仁圭)는 동학의 잔당이니 진실로 잡아 바치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천금의 상을 내리겠다”라고 관찰사가 훈령.
1904	5. 15	“동학의 거두는 이미 교형(絞刑)으로 다스렸고 범망에 빠져 달아난 자는 기필코 썩을 제거해야 끝날 것이다. 처음부터 사악에 물들고 학통(學統)을 범하며 주문을 외우는 자 있다면 즉시 잡아들이고 통첩지(通帖紙)도 수거할 것이다”라고 관찰사가 훈령.

* 원문은 각 항목 해당 연월일 참조.

동학농민혁명 이후 농민군 색출을 위해 전라도 각 군 단위와 군과 읍 간에는 오가작통제(五家作統制)가 사상통제를 위해서 향약(鄉約)이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다. 이는 전라감사 이도재의 농민군 수습책과 순무 선봉진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작통 조직은 5가-통수-연장(連長; 이정, 이장)-동장-군수로 이어지는 체계였다.³ 부안군에는 농민군 주력 진압 직후인 1895년 1월 17일부터 ‘작통제’가 실시되었는데, 기형현은 “우리 마을

의 오가작통성책(五家作統成冊)을 다시 정리하였다”라고 일기에 기록하고 있다. 19일에는 영문에서 향약장정절목책(鄉約章程節目冊)이 이 지역에 내려왔다. 오가작통제에 관한 『홍재일기』의 기록은 일찍이 1867년부터 시작된다.⁴ 작통제는 민란 등 변혁운동과 도적 등의 색출에 활용되었다.

동학농민혁명 이후 러일전쟁 시기에 이르기까지도 부안 지역의 오가작통제는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1900년 윤8월 활빈당(活貧黨)과 병정들이 전투를 벌였는데 병정이 패하자 병정 1포(包)가 다시 변산으로 들어간 일이 있었다. 이에 관찰사 이도재는 “적당(賊黨)을 잡아들이는 일로 오가작통을 성책해서 보고하라”라고 훈령하였고, 같은 달 7일 기행현은 『포적작통성책(捕賊作統成冊)』을 작성해서 주었다. 1903년 8월 18일 관의 전령에, 화적(火賊)을 쫓아가 사로잡는 일을 오가작통하니 통수(統首)의 성명을 성책하여 보고하라고 하였다. 같은 해 12월 1일 관청에서 온 첩문은 다음과 같다.

“근일에 도둑의 발생이 점차 늘고 널리 퍼져 백성이 안도하지 못하니 엄히 체포해야 하므로 각 마을로 하여금 오가작통(五家作統)은 매달 삭망(朔望) 두 차례에, 각자 호신죽창(護身竹槍)을 지니고 훈집소(訓執所) 있는 곳에 와서 점고에 참여하고 대열을 정리하여 빨리 방어하되, 성책(成冊)한 벌은 성첩(成帖)하여 내어 보내고, 한 벌은 관에서 조험(照驗)하라.”⁵

부안 지역의 오가작통은 각 마을에서 매달 2회에 걸쳐 시행하되 각기

3 이에 대해서는 이영호, 『동학과 농민전쟁』, 해안, 2004, 261~292쪽 참조.

4 『鴻齋日記』, 1867년 3월 9일 자.

5 『鴻齋日記』, 1903년 12월 1일 자.

죽창 등 호신용 무기를 소지하고 훈집소에 모여 점검하고 그 내용을 두 권의 책으로 작성하여 비치해두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러일전쟁 직후인 1904년 10월 9일에는 ‘적비(賊匪)를 단속하고 체포하며 조직하는 규정’ 내용에, “오가작통하고, 각 통수는 통 안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순찰경계하라”면서 즈포관(戢捕官)으로 만경군수 정인의(鄭仁義)를 임명하였다. 11월 29일 참약장(參約長) 신관하(辛觀夏)의 통문을 보았는데, “각 마을은 오가작통 정책 3건씩을 다음 달 10일까지 작성하여 보고하라”는 내용이었다. 1905년에도 작통제는 유지되고 있었다. 그해 2월 10일 집강이 오가작통의 일로 다녀갔고, 7월 5일에는 선무사 종사관 임권하(林權夏)가 읍에 들어와서 각면 훈집을 불러서 대면하면서 효유하였다. 이때 선무사는 오가작통 정책 중에 사업인(四業人)의 과공일기(課工日記)를 모아 작성 후 시급히 관가에 보고토록 하였다.

2) 동학농민혁명 이후 변혁운동

1895년 2월 6일 자 일기에서 기행현은 “지난번에 듣자니 동학당이 고산의 산중에 모여 진을 치고 있다고 하였는데 오늘 들으니 감영에서 병사를 일으켜 공격하여 죽은 사람이 20명이고 생포한 사람은 18명이라고 한다”고 적고 있다. 이는 대둔산에서 전개된 동학농민군 최후항쟁을 언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라도 진산과 고산 등지에서 활동하던 농민군 중 일부가 대둔산에 근거하고 항쟁하였는데 일본군과 관군 연합군은 1895년 2월 17일 총공세를 감행해 진압하였고 농민군은 모두 몰살되었다. 같은 해 4월에 그는 전봉준과 손화중 등 6명이 지난달 27일에 교수형에 처해졌다는 서울 소식을 들었다.

한편 11월에는 경상도 경주에서 민란이 크게 일어나서 왜인(倭人)과

접전하여 사또가 해를 입었고, 나주에서도 민란이 다시 일어나서 군기(軍器)를 훔쳐갔다고 한다. 또한 동학농민군 정익서(鄭益書)가 무리 300여 명을 이끌고 태인에서 고부읍에 이르렀고, 동학을 사로잡으라는 관문이 내려왔다는 것이다. 이후 1896년 7월과 1897년 9월의 일기에서도 영학(英學)이 크게 일어났고 동학도 다시 일어났다는 얘기가 여기저기 파다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패잔 동학농민군 토벌방침에 관해 1897년 10월 11일 면임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전령 고시를 보았다. 패잔 동학농민군뿐 아니라 서양 종교를 빙자하여 침학하고 폐단을 일으키는 무리를 엄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대황제 폐하께서 하늘의 해와 달처럼 위에 계시는데 동비(東匪)의 여열(餘孽)이 여전히 남아서 잠복하였다가 숨어있는 곳에서 성기상통(聲氣相通)하고 도당(徒黨)을 체결하여 다시 일어났다. 이때 어지럽게 들리는 소문이 낭자하였기에 사령관 36대 친위 중대장 김명환(金命煥)이 읍을 순찰하기 위해서 다녀갔다고 한다.”⁶

1898년 3월 16일 일기에는 서울에서 몰래 내통한 영학당(英學黨)을 금강까지 유인하여 때리고 구덩이에 묻었고, 3월 17일에는 제주민란(제1차 제주민란)에 방두팔(房斗八; 방성철의 오기)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10월 16일 영학이 서학의 화포(火炮)를 빼앗아 갔다는 내용 등을 적고 있다. 같은 해 3월 23일 정부의 기독교 금지 전령에서는, ‘어리석고 우둔하고 무지몰각한 무리가 서교(西敎)라는 이름을 가탁(假托)하여 법을 어기

6 『鴻齋日記』, 1897년 10월 11일 자.

며 시골 마을을 침략하였다. 심지어 관인을 능멸하고 평민을 욕박지르니 이 무리들의 이런 습속을 결단코 엄중하게 처리하여 반드시 금지할 것이 다'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서울의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활동도 일기에 적고 있다. 10월에는 독립협회(獨立協會)의 민권당이 크게 일어나서 나라 안이 어수선하였고, 11월에는 독립협회가 만인공동회(萬人共同會)로 변하였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다. 이듬해인 1899년 1월에는 서울에서 내려온 김응복(金應福)으로부터 지난해 11월 14일 독립협회 회원 3,000여 명을 때려죽였다는 소문도 들었다. 마지막 일기 내용은 잘못 전해진 것이다.

기행현은 영학당에 관해 다음과 같이 종합하여 평가하였다. 영학은 곧 동학으로 1899년 3월 25일에 고창에서 다시 일어나 성을 함락하고자 들어갔는데 매우 삼엄하게 수성(守城)하였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해서 28일에 물러나기로 하고 각처에 통문(通文)했는데 접주가 더러는 홍덕에서 더러는 김제에서 무리지어 모였다고 한다. 홍덕에서 모인 자는 고창에 붙잡혀 갇혀 있는 홍덕민란의 장두(狀頭) 이화삼(李化三)을 탈출시키려고 했고, 김제에서 모인 자는 군전관 김창석(金昌錫)의 집을 때려 부순 후에 합세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는 영학과 동학, 서학을 구분하고 있다. 예컨대 영학은 고창 등지에 서, 동학은 담양에서 모였고, 김창석은 서학에, 임권화(林權化)는 영학에 붙었다고 한다. 또한 인근 읍에 모인 사람 가운데 영학당의 접주는 8명이며 부안접주는 백사준(白士峻)이라고 한다. 이후 누구인지 알 수 없는 1백여 명의 사람들이 4월 19일 새벽에 고부군에 들어가 군기(軍器)를 탈취하여 홍덕으로 향하였고, 20일에는 영학군 1,000여 명이 홍덕에 들어가 군기를 탈취하여 사포에 진을 치고 머물고 있는데 장차 부안 줄포로

향한다는 동임의 보고에 따라 즉시 감영에 보고하고 수리(首吏)가 줄포에 사통(私通)토록 하였다는 것이다. 22일 밤에는 영학당이 부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낱자하였지만 지금 들으니 뜬소문이라고 하였다. 24일 저녁에는 고창군수가 몸소 선봉에 서서 영학군과 접전하여 처부수어 그중 8명을 사로잡았고, 난산장시[卵山市]까지 추적하여 추가로 16명을 사로잡았다고 한다.

한편 정읍과 태인 등지에서도 영학이 크게 일어났는데, 고창에서 패한 이후 망명하여 달아난 사람이 허다하였기 때문에 28일 무렵에서야 체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감영군이 수성군과 함께 날마다 마을에 출몰하여 백성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며 마치 큰 난리를 만난 것 같았다고 한다. 경병(京兵)과 강화병(江華兵)이 이제 막 내려왔지만 영학의 우두머리 최익선(崔益善, 최익서[崔益瑞]의 오인)과 동자 박쌍환(朴雙煥)의 체포에 실패하여 대신 그 아버지(최영두[崔永斗]를 말함)를 잡아 가두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부안군에는 영학이 없어서 병정이 들어오지 않아 태평하다고 안도하였다. 6월 2일 고창 경계에 이르러서는 영학 무리로 죽은 자가 40여 명이라고 들었다.

기행현은 1901년 5월 제주에서 큰 난이 일어났다는 확실하지 않은 소문을 들었는데 이는 제2차 제주민란(대정민란)을 말하는 것이다. 6월에는 풍문으로 홍양이란(興陽吏亂)의 소식도 들었는데 정장교(鄭將校)가 우두머리라고 하였다. 한편 1902년 2월 20일 뗏자리를 구하려고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고부 백산(白山)에 올랐다. 이때 그는 동학농민군 총대장 전봉준(全琫準)과 갑오년을 회상하면서 “당시 민란의 장두(狀頭)이고 동학대장이었는데, 그대는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탄식하기도 하였다. 한편 1903년 11월 2일에는 그가 거주하던 읍에서도 민중봉기가 크게 일

어났다. 이에 3일 아침에 민요소(民擾所)의 집사 김해 김씨라는 사람이 마을에 돌입하여 소동을 일으킨 백성들의 집집마다 군인 수십 명을 동원하여 들이닥쳤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돌아와 난리는 평정되었고 장두(狀頭) 김군화(金君化)는 도주했다는 사실도 기록하였다.

3) 을미사변과 의병봉기

일본은 청일전쟁으로 이루어낸 이른바 ‘조선 보호국’화의 결실을 거두려고 하였지만 러시아 프랑스 독일 삼국의 개입 이후 조선 왕실이 러시아 접근정책으로 회귀하였기 때문에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 극단적인 해결책으로 1895년 8월 일본군과 낭인들의 왕후 민씨 살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났고(을미사변) 그 여파는 ‘국모보수(國母報讎)’ 등의 기치를 내건 반일 의병운동(을미의병)으로 분출되었다.

왕후가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기행현은 1895년 9월 3일 처음 듣게 되었다. 그가 들은 내용은 지난달 22일에 한양의 대궐 안에서 군인들의 난리가 크게 일어나 중전이 죽었다, 혹은 도망갔다고 하고, 10명의 대신이 모두 죽었는데 박영효(朴泳孝)는 도망하였고, 서광범(徐光凡)·어윤중(魚允中)·정범조(鄭凡祚)·김종한(金宗漢)·홍재희(洪在喜)도 죽었다는데 일단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신정희(申正禧) 부자는 그 전에 자살했다고 한다. 당일 왕후 민씨를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삼는다는 조칙도 소개하고 있다.

10월 9일 그는 동헌에 들러 고을 현감을 만났다. 이때 현감이 그에게 “나랏일이 한심할 뿐 아니라 통곡할 만하다고 하면서 죽고자 하여도 죽을 곳이 없다”라고 하였다 한다. 같은 달 21일 먼 주인으로부터는, 8월 22일 왕후 민씨를 폐위하고 서인으로 삼는다는 조칙 대신에 왕후를 복위한다

는 조칙이 내려왔으니 9월 15일에 거애(擧哀)하고 17일에 발상(發喪)한다는 훈령이 다시 내려왔다. 이번 달 23일에 곡반(哭班)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왕후가 일본인들에게 살해되었다는 소식은 몇 달 후 의병 봉기의 기제가 되었는데, 그는 11월 1일 부안읍에 붙여진 의병의 방문(榜文) 전문을 일기에 소개하고 있다.

“삼가 대의(大義)로써 중외자에게 포고하노라. 국가가 불행한 운수를 만나 간신들이 시역(弒逆)하여 권세를 농단하고 있다. 8월 20일 변란을 어찌 차마 말할 수 있겠는가? 왜인을 불러들여 임금을 위협함에 저들의 앞잡이가 되었고, 태공(太公, 홍선대원군)을 만들어 국모를 살해함에 너희가 내응(內應)하였으니 왕망(王莽)이나 동탁(董卓)도 하지 않은 일이고, 진회(秦檜)나 채경(蔡京)도 하지 않는 일이다. 시찰경무(視察警務)는 한갓 민심을 어지럽히고 끼리끼리 결당하여 국록(國祿)을 훔쳐가고 있다. 검은 두루마기를 입고 백등나무 의자에 앉아서 이것이 개화된 물건의 공로라고 하고, 연초(煙草)를 맡고 다리를 꼬아 상에 올리면서 백성을 교화시키는 풍속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한 지 1년 만에 국모를 시해하였으니, 10년 동안 행한다면 장차 어떤 번고를 일으키겠는가.……우리들이 앞장서서 의리를 같이 하여 홍역을 토벌하려 한다. 삼가 원컨대 진신(縉紳)과 장보(章甫) 그리고 팔도의 신민(臣民)들은 일제히 메아리처럼 호응하여 우선 국내 역당을 토벌하고, 왜인 회관(會辦)의 경우는 각국 사람들이 법으로써 시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⁷

이 통문은 삼남의 유생 심상천(沈相天), 홍종명(洪鐘鳴), 김홍규(金鴻圭), 김창현(金昌鉉), 김병택(金炳澤), 조병설(趙秉畲), 임재호(任在鎬),

7 『鴻齋日記』, 1895년 11월 1일 자.

권용기(權用起), 송노수(宋魯洙), 윤자익(尹滋益) 등의 명의로 작성된 것이다. 부안 지역 의병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그간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인물들로 향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듬해 초부터 전국적인 의병봉기가 시작되었다. 기행현은 1896년 2월 2일 자 일기에, “팔도[八路]의 의병들이 봉기하였는데, 장성의 기우만(奇宇萬)도 창의(倡義)하였다고 한다”라고 기록하였다. 이어 같은 달 4일과 5일에는 지난해 12월 팔도의 여러 지역에 보낸 호서의병대장 유인석(柳麟錫)의 격서와 참봉 기우만의 창의 통문을 보았는데, 장성향교의 통문과 홍주의 통문이 부안 향교에서 왔다는 것이다. 그는 전국 각 지역에서 의병이 크게 일어나 개화를 주장하는 수령의 목을 베거나 병정과 서로 접전하였고, 나주 의병장 정석진(鄭石珍)과 장성 기우만이 서로 표리가 되어 네 명의 나주 낭관(郎官)을 목 베어 죽였다고 하였다. 같은 달 27일에는 “귀 읍의 수령 서상원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 머리를 깎았으니 귀읍의 대소 민인들이 일제히 모여 그 죄를 성토하고 몰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격문을 보내 먼저 징치할 것이다”라는 나주 의병소의 통문이 부안읍에 도착하였다.

3월 6일 자 일기에는 전라도 의병장 장성 참봉 기우만, 담양군수 민종열(閔種烈), 해남군수 정석진(鄭碩鎭)이 나주에서 성을 지키고 있고, 8일 경군 8백 명이 나주로 내려갔다고 한다. 그런데 기우만과 정석진은 거처를 알 수 없고 의병들은 스스로 해산하였지만 박태익(朴泰益)은 나주성을 방비하면서 어가(御駕)가 환궁(還宮)하고 국모의 원수를 갚고 개화당을 혁파한 후에야만 의병을 그만두겠다고 하였다고 한다. 같은 달 17일에는 “감영군이 내려가서 의병을 크게 격파하여 나주성을 비웠으니 장성의 기씨 문중이 크게 화를 당하겠다”라는 이야기와 “의병이 하나같이 엄

숙하였다”라는 나주 아동들의 평가도 소개였다.

한편 자신의 가문이기도 한 전라도 기씨 문중의 의병참여와 감영군의 보복 내용도 소개하고 있다. 3월 19일에는 기우만의 집을 때려 부순 것을 문제 삼아 3차례 상소하였지만 비답을 보지 못하자 다시 상소하기 위해 경성에 올라갔고, 25일에는 기씨 문중에 관한 일로 감영군이 부안 변산의 좌우 산내면에 들어갔는데 큰 난리가 났다는 것이다. 또한 26일 풍문에 기진사(奇進士)가 청림 근처에서 잡혀갔다고 한다. 27일 자 일기에는 의병을 동학당으로 간주하여 정치하고 기(奇)씨 성을 가진 사람은 유독 큰 난리에 멸문(滅門)의 화를 당하였다는 것이다. 4월 1일 자 일기에는 파견한 영병을 불러들인다는 명령이 있었고, 기씨가 당한 화는 차츰 정리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4일 70여 명의 나주의 의병이 해를 입었고 기우만은 운봉에서 붙잡혔다고 기록하였다.

그는 의병에 대응하는 정부의 문제점과 그 대책에 관한 전령과 훈령을 소개하고 있다. 먼저 5월 17일 자에 면주인을 통해 확인한 전령에 따르면, 비도의 잔당들이 부랑패류의 습성으로 수상한 짓을 저지르는데 혹은 염탐꾼이라고 하거나 혹은 병정이라고 하는 자와 잡기를 하거나 죄를 저지른 자를 결단코 붙잡아 들여 엄히 다스릴 것이라고 하였다. 다음 7월 13일 자 관찰사의 훈령에는, ‘비류(匪類) 가운데 분부받은 명령을 회피한 자를 다시 붙잡아 들여라’라고 되어 있었다.

기행현은 을미년의 의병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표현으로 일기에 기술하고 있다. 이는 장성 의병대장 기우만을 비롯한 기씨 문중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에도 기인한 바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충청도 의병장 유인석에 대해서는 과하게 혹평하고 있다. 즉, 1897년 4월 20일 자 일기에서 그는 “충청도의 의병장 유인석(柳隣錫)은 역적이라고 할 만

하니 갑산과 춘천 두 고을의 사또를 죽였다고 한다. 그래서 경군(京軍) 몇천 명이 내려가서 사로잡았다고 한다”라고 적고 있다. 부정적 평가의 이유는 지방관리 살해가 큰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을사늑약과 을사·정미의병에 대한 인식

1) 을사늑약과 순국 자결

1904~1905년 러일전쟁과 관련하여 『홍재일기』의 주요 내용은 일본군의 지역 주민과 물자 동원 문제였다. 러일전쟁 개전 직후인 1904년 1월 일본인 수백 명이 전주부에 들어가 전라도 관찰사와 전주 판관에게 군량과 말 쵡[馬太]·땃감 등을 요청하여 제공해 준 사실을 거론하면서, “왜(倭)가 이기면 화(禍)가 아침저녁으로 있고 러시아가 이긴다면 화가 경각에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또한 전주에 들어간 일본인[倭人]은 부지기수로 완산칠봉(完山七峯)과 황방산(黃方山) 등지에 진지를 구축하고 군량과 말쵡·땃감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았으며, 이곳부터 김제 동진(東津)까지 운반하는 사람의 행렬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일본인이 관찰사를 위협해 9군에 훈령을 내렸지만 다행히 부안군은 이를 면하였으니 우선은 천만다행이라고 안도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4월 무렵부터는 전쟁에서 일본이 승세를 굳히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다. 4월 17일 자 일기에서 그는 “요즘 듣기에,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을 하여 러시아 사람이 크게 패하고 일본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겼으며, 러시아 사람 26,000여 명을 사로잡았다고 하였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양 장현(長峴, 니현(泥峴)의 오기로 보임)에 큰 잔치를 베풀

고 본국의 대신을 초청하여 같이 즐겼는데 일본사람이 말하기를 ‘자기 말이 맞으면 모두 손을 올리라’고 요청하자, 대신들이 모두 손을 올렸지만 심상익(沈相益)만이 따르지 않았다. 일본사람이 그를 때리려 하자 심상익이 예의로써 그를 책망하니 일본사람이 엎드려 빌었다”라고 기록하였다. 심상익은 심상훈을 잘못 본 것으로 보인다. 반면 6월 7일 자 일기에는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하여 일본이 패하고 원산이 크게 부서졌다. 우리나라 백성들 가운데 죽은 자가 1만여 명이라고 하였다”라는 러시아의 승리 소식을 기록하고 있다. 충청도에서도 일본사람이 멋대로 행동하고 돈·곡식·논·밭·노비 등 재산을 빼앗는데 연산과 회덕이 특히 심하다고 하였다.

같은 해 7월의 일기에서는 전쟁 기간 일본의 토지 점탈 기도에 대한 관찰사의 훈령도 기록하였다. “산림과 시내와 못은 손을 안 대고 버려두어서 묵고 거칠어진 땅에 만약 일본사람이 온다면 행위를 금한다는 뜻의 표목(俵木)을 꽂고 각 면에 알려라”라는 내용이었다. 또한 “일본 병참감부 공문서에, 한국 인부를 모집하는 사무는 먼저 본부(本府)에서 각 군에 분배하고, 인부 수효는 1,200명으로 모두 억지로 모집하지 말고 반드시 자원(自願)에 따르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1일 품삯을 7냥 5전씩 지급하는 일을 효유하라”는 관찰사의 비밀 훈령을 적고 있다. 전쟁 과정에서 조선의 황무지 개척을 빙자한 일본인의 토지점탈과 일본군의 인부모집과 동원에 관찰사가 양면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기행현 또한 “인부를 모집하는 일은 반드시 민심을 크게 어지럽히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하였다. 반면 그의 친구 김윤중(金允中)은 “일본인이 모정(募丁)하는 일은 심히 걱정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였다.

러일전쟁을 승리로 결론짓자 제국주의 일본은 그 후속 조치로서 대한

제국 정부의 각료들을 겁박하여 ‘을사조약’을 강제 체결함으로써 국권 강탈을 본격화하였다. 이에 시종무관장 민영환을 필두로 하여 수많은 우국 지식인들이 자결 순국하게 되었다. 그 소식은 부안의 기행현에게도 들리게 되었다. 그는 1905년 11월 14일 자 일기에 방금 듣자니 국가 어떤 큰 변란이 있어서 민영철(閔泳喆)·조병식(趙秉植)·이도재(李道載)가 종일토록 통곡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였고, 17일 자에는 열 명의 대신 중에 5대신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5대신은 역적이 되었고, 국왕 가족 삼부자의 존망과 생사, 거처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기록하였다. 한편 21일 자 일기에는 ‘지난달 27일 왜변(倭變)’(을사늑약을 말함)으로 민영환(閔泳煥)이 하루 종일 통곡하고서 종묘에 가서 칼을 품고 궐정(闕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병정 아무개도 그의 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 후 심순택(沈舜澤)·조병윤(趙秉潤)·이용식(李容植)·홍만식(洪萬植)·조병세(趙秉世) 등이 차례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민영환에게 시호를 내리고 예장(禮葬)한다는 소문이 있으나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여러 대신들의 자결 관련 일기 내용은 와전된 것으로 민영환과 홍만식·조병세 외에는 사실과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다.

을사늑약은 기행현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일기에 개화지식인 밀아자(蜜啞子) 유원표(劉元杓)의 글과 영국 신문, 『대한매일신보』 기사, 참관 이남규(李南圭)의 상소 전문을 차례로 소개하고 있다. 먼저 밀아자의 글은 다음과 같다.

“예전에 나라가 망할 때는 임금이 바뀌고 사직이 옮겨지며 국호가 바뀌더라도 토지와 인민이 모두 그 업을 이으니 이것은 황실이 없어져도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나라가 망함에 임금, 사직, 국호가 보존

되었으나 토지와 인민이 그 번역(變易)을 당하였으니 이것은 황실이 보존되었으나 백성은 망했다는 말입니다. 대개 이 나라의 토지가 다른 나라에 점거되고 귀속되어 저 나라의 인민들이 이 땅에 옮겨오니, 우리 땅과 인민들이 자연스럽게 점점 없어지는 증거는 본디 듣도 보도 못하였습니다.⁸

영국 신문은 “한국의 일이 개탄스럽다. 인민들이 이처럼 끔찍하다. 일찍이 뜻하지 않은 조약이 성립되는 날에 외교는 동경(東京)으로 옮겨가고 통감(統監)은 한성에 설치되었음에도 모두 우매하여 깨닫지 못하였으니 어린아이를 속이는 것과 같을 뿐이다. 하루아침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으니 가련하고 또 가련하다. 아마도 세계의 공의가 없어서 일 것이다. 완력가가 병든 사람의 금과 보물을 힘써 빼앗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하였다. 『대한매일신보』에서는 스페인이 필리핀을 침입할 때 인민들이 군센 기와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저항하여 물리쳤고, 영국이 트란실바니아를 병탄하고자 병사를 일으켜 공격할 때 그 군주와 백성들이 죽기로 사수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두 나라를 살펴보면 한국의 강토는 8만 방리(方里)의 면적과 인구는 2천만 인이니 공격하고 지키는데 무슨 근심이 있겠는가. 백성들의 기(氣)가 거의 작디작은 두 나라만 못하니 무엇 때문인가”라고 반문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참관 이남규는 소장에서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은 부(部)의 인장으로 조인하여 나라를 적에게 넘겨주었으며, 그 나머지 도적들이 더러는 가(可)라고 쓰고, 불가(不可)라고 쓰니, 하루아침에 적에게 두 손으로 넘겨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위로는 종묘사직의 신령이 의지할 땅

8 『鴻齋日記』, 1906년 1월 4일 자.

이 없어지고 아래로는 백성들이 슬픔을 호소할 하늘이 없어졌으니, 말살(抹殺)함이 이 같다면, “지난날의 역사를 두루 고찰해 보건대 임금이 나라를 남에게 넘겨주어 그 신하들이 따르는 경우는 더러 있지만 신하가 나라를 남에게 넘겨주었는데 그 임금이 따르는 경우는 없습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기행현은 연재 송병선(宋秉璿)이 1905년 12월 27일에 약을 마시고 서거한 내용, 그의 상소에 대한 비답, 면암 최익현과 간재 전우의 상소에 대한 비답도 기록하였다. 또한 송병선의 시호는 문충공(文忠公)이며 1906년 2월 22일 금산에 예장(禮葬)한다는 소식, 6월 13일 민영환이 죽은 뒤 시신을 모셨던 방에 대나무 세 개가 났다는 풍문까지 소개하였다.

2) 을사의병·정미의병의 동향

러일전쟁 직전부터 일본의 침탈야욕을 감지한 지방 민중들의 움직임은 기민하게 전개되었다. 『홍재일기』에 따르면 1904년 1월 26일 임시중(林時中)이 주도하는 의병이 태인에서 모였다가 28일 스스로 흩어졌다고 한다. 을사늑약 직전에도 전국에서 의병이 봉기하였다. 1905년 7월 일기에는 면암 최익현이 삼남(三南)으로 향하여 의병을 일으키고 통문을 돌리며 읍을 순회한다고 적고 있다. 11월 13일에는 송병선과 최익현이 수두(首頭)라는 내용의 의병 통문이 그가 사는 부안의 향교에 당도하였다. 같은 달 21일 기행현은 의병소의 또 다른 통문을 보았는데, 올해 8월 27일에 대동공법(大同公法; 만국공법을 말함)을 준수한다는 통문을 발송하였고 13도의 유생 대표는 김동필(金東弼)이라는 내용이었다. 이후 1906년 6월까지 경상도 동래와 안동 의병, 충청도 홍주 의병, 전라도 태인과

정읍, 장성, 광주, 순창, 전주의 의병 상황과 정부의 의병 토벌 사실을 일기에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1906년 1월 21일 자 일기에, “어제 화적(火賊)들이 흥덕 칠성동(七星洞)에 침입하여 방수군(防守軍)과 접전하였는데 만나절도 되지 않아 방수군은 패주하였고, 화적들은 곧장 들어가 포를 쏘고 불을 놓으니 온 마을에 한 집도 남지 않고 모두 재가 되었으며, 죽은 사람이 12명이라고 한다”라며 일부 의병을 화적으로 단정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부터 그의 인식에서는 의병과 화적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선 을미의병 당시의 인식과는 많이 달라진 것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어떤 이는 의병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화적이라고 말하고, 더러 삼사백 명이라고 하고 혹은 삼사십 명이라는 사람들이 갑자기 줄포에 들어가 왜관(倭關)을 때려 부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스스로 해산하였다. 간 곳을 알지 못하니 모두 말하기를 신병귀책(神兵鬼策)이라고 한다.”⁹⁾

이 같은 ‘의병=화적론’은 지난달에 줄포에서 왜관을 때려 부순 의병들이 이제는 화적이 되어 무장(茂長) 등지에서 사로잡혔다는 기록으로 이어진다. 기행현은 곳곳의 의병이 “혹은 관장(官長)을 무참히 살해하고 혹은 관장을 무참히 몰아내는 일이 허다하다”라고 하여 일본인 처단은 긍정적으로 보았지만 지방관 처단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9 『鴻齋日記』, 1906년 6월 14일 자.

이후에는 주로 의병과 일본군과의 접전, 그로 인한 지역민의 피란상황을 기술하고 있다. 1908년 4월 26일 자 일기에는, “의병이 변산에 들어와 왜병과 접전한다는 말이 낭자하니 산중에 사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산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기록하였고, 개암동에 들어가 죄 없는 사람을 참수(斬首)하고 포살(炮殺)했다고 하였다. 용동리라는 곳에서는 7명의 여자를 약취해 갔는데, 그 과정에서 일본군이 예동에 들어와 마을 안을 횡행하다 가자 부녀자들이 겁을 먹고 달아나 피해서 온 사람이 많았다고 하였다. 기형현 역시 종제와 피난도생법(避亂圖生法)을 보았다는 일기 기록으로 보아 피란을 진지하게 고민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1908년부터 기형현의 의병에 대한 인식이 전에 비해서도 매우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이 일기에서 보이는 특징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자칭 의병’으로 인한 피해와 면회(面會) 개최 등을 통한 지역민의 대응을 소개하고 있다. 같은 해 9월 23일 자 일기에는, “외돈에 사는 김문재(金文才)와 머슴 김가가 자칭 의병이라면서 인근 마을을 마구 휘젓고 다녀 고부에 잡아 가두었는데, 마구잡이 진술 속에 면내 백성 중 잘못 들어간 사람이 많아 면회를 열어 바로 잡으려 한다”고 적고 있다. 11월 10일 밤에는 전주에 사는 이름을 모르는 자칭 의병 김가가 찾아와서 돈 3냥을 주어 보냈다고 기록하였다. 같은 달 12일 밤에는 의병이 예동 김성숙의 집에 불을 질러 전곡(錢穀)·의복·음식 등 가산이 모두 잿더미 속으로 들어갔다고 하기에 다음날 가서 보기도 하였다. 21일 깊은 밤에 안가(安哥)와 자칭 의병 4, 5명이 들이닥쳐 돈과 재물을 토색하였는데 집집마다 적간(摘奸)할 때 종제의 집에서는 뒷날 50전을 주겠노라고 달래서 보냈다고 한 사실도 알았다고 한다. 1909년 7월 1일 자 일기에는 이른바 의병이라는 박가와 양가가 와서 보여준 호남 의병장 지령에, ‘술 2동이, 돼지 1마리, 백미 5

되를 즉시 거두어 오라'라고 하였는데, 궁한 시절에도 사례(謝禮)가 없으면 내던지고 때리니 할 수 없이 돼지 1마리와 쌀 2되를 주어 달래 보냈고, 추가로 참외와 가지, 쌀 1말을 주어 보냈다고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의병봉기와 진압 일본군 출동에 대해 그 자신이 농사를 짓는 상황에서 생활인으로서의 개인의 현실적 처지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게 토로하였다.

“대저 금년 농사는 겨우 흉년을 면했는데, 고지대의 논밭이 아닌 곳은 풍년이고 깊은 곳의 물이 가까이 있는 논은 실농이니 흉년이라 할 만하다. 곡식값은 시세가 없으니 이 무슨 까닭인가? 지전(紙錢)과 엽전(葉錢)이 통행되어 어지럽게 쓰이니 높이 떨 만한데 시세가 없으니 이 무슨 까닭인가? 의병이 득세해서인가? 왜인이 제멋대로 자신의 위세를 부려서 그런 것인가?”¹⁰

남한대토벌 작전에 즈음하여 1909년부터는 부안 지역의 의병색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월 18일에는 각 마을 인구의 용모과기(容貌記)와 키는 몇 자인지, 생년월일을 성책하라는 지령이 하달되었다. 이에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용모과기를 성책하여 동임(洞任)에게 주었다. 윤2월 20일 자 일기에는 일본군[倭兵]이 마을을 횡행하며 사람을 만나면 차고 때려 거의 죽을 지경인 사람이 허다하고, 의병소 도처에 보발(步發)을 세우지 않은 일로 각 마을 동임을 잡아갔는데 가둔 지 5, 6일 에야 지금 겨우 내보니 잔민(殘民)이 어떻게 살겠는가라며 일본군 토벌

10 『鴻齋日記』, 1908년 11월 30일 자.

대로 인한 피해를 하소연하였다. 그들의 징발 문제도 거론하였다. 7월 17일 면장의 회유 내용에 ‘일본 수비대 보병 숙식소에 생닭 5마리, 계란 10개를 거두어 보내라’라고 하였다. 같은 달 18일에는 보병 10여 명이 도착해 동임의 집에 자리를 잡고 마을의 남자는 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불러 모아 일일이 적간하고, 그 뒤에는 집집마다 흩어져 들어가 가산을 일일이 적간하고 갔다고 하여 정부군의 가택수색 상황을 기재하였다.¹¹

이 시기 기행현은 의병의 군수품 징발을 ‘토색’이라는 언어로 표현하는 등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었다. 예컨대, 1909년 윤2월 2일 “의병 두 사람이 와서 마을 안에서 돈, 재물, 술, 음식을 토색하였다. 그래서 돈 5냥을 주니 술과 음식을 기다리다가 갔다”라면서, “몸뚱이 하나에 사살(四殺)이 침범하여 쇠기(衰氣)가 침범하고, 화재가 침범하고, 의병이 침범하고, 왜병이 침범하였다. 한 점의 생기(生氣)로는 제거하기 어렵다”라고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였다. 같은 달 11일에는 “의병 2인이 와서 마을 안에서 돈, 재물, 술, 음식을 토색하므로 돈 2냥을 주어 보냈다”고 하였고, 12일 “의병이 또 와서 토색하므로 돈 2냥 2전을 주어 보냈다”, 13일에도 “의병이 또 와서 토색하여 2냥을 주었다”라고 기록하였다. 21일에는 “의병 두 사람이 와서 돈과 재물을 토색하였는데 결정하지 못하고 갔다.” 22일에는 “의병이 돈을 결정하지 못한 일로 또 와서 휘젓고 다녔다. 동임과 마을 사람들이 모두 피하니 보지 못해 결정하지 못하고 갔다”라고 기록하였다. 25일에는 의병전(義兵錢)을 해결하지 못한 일로 마을 사람들이 겁을 먹고 달아났고, 26일 의병 최원경(崔元京)이 돈과 재물을 해결하지 못

11 대한제국 정부와 지방관의 반일운동 탄압양상에 대해서는 조재곤, 「러일전쟁 이후 의병 탄압과 협력자들」 『한국학논총』 37, 2012 참조.

한 일로 몰래 동임에게 통지하였다는 것이다. 6월 12일 이른 아침에는 의병 최철(崔哲)과 홍원경(洪元京)이 군수전 51냥을 마을에서 보조해달라고 요청했고 5냥만 주겠다고 하니 대꾸하지 않고 가버렸다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강요된 의병의 금전 징수는 지역 주민에게 큰 부담이 되었고 일부 피란으로까지 연결된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4. 일제의 국권 침탈에 대한 인식

1) 일진회와 친일세력

러일전쟁 이후 일제의 국권침탈 과정에서 일진회와 자위단 등 민간차원에서 의병과 민중운동 탄압도 자행되었다. 일진회는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국권보다는 민권,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더 강조한 이른바 ‘문명개화’를 절대 과제로 내세운 친일 사회단체였다.¹² 기행현의 일기 1904년 11월 12일 자에 “일진회(一進會) 40여 명이 본 군에 들어왔는데 본래 동학이라고 하였다”라는 기사가 처음 등장한다. 일진회 세력의 부안 진출이 시작된 것이다. 1904년 11월 이후부터 1905년 2월까지 부안 지역의 일진회 활동 상황을 『홍재일기』를 통해 보면 다음과 같다.

11월 14일에는 일진회 사무소에서 군의 남문 안과 주점 벽 위에 글을 부쳤고, 12월 29일에는 일진회원과 활빈당, 영학당이 주와 군에 횡행하여 뜯소문과 헛소문만 무성하여 믿을 수 없다고 하였다. 1905년 1월에는 경

12 이에 대해서는 김종준, 『일진회의 문명개화론과 친일활동』, 신구문화사, 2010 참조.

성에 사는 김치병(金致秉) 5형제가 삭발하고서 일진회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일진회원들이 새해가 된 후 더욱 성하다고 한다. 기행현이 거주하는 마을의 호구성책(戶口成冊)과 결복답주성책(結卜畝主成冊) 2건을 작성하여 외예동 일진회소로 보낸 사실도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일진회원들이 전주의 병리(兵吏)들과 서로 다투어 3명이 피살되었다고 한다. 일진회원들의 폐해에 대해 그는, “일진지회(一進支會)의 본의는 진실로 황실을 공고히 하고 백성들의 산업을 보호하는 데에 나온 것이니, 곧 양규(良規)이다. 회인(會人)이라고 거짓 칭하고 마을에서 횡행하여 폐단을 일으킨 자는 결박하여 잡아서 올려보내라”라는 같은 달 13일 자 관청의 지시 내용도 소개하였다.

지역사회의 일진지회 거부 운동과 의병의 대응 및 정부의 반응이다. 일진회원들의 횡행에 대한 1905년 2월 18일 전주향교의 권학수(權鶴壽)·유기(柳記)·최의영(崔議榮)·소휘관(蘇輝觀) 등은 통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우리 대한은 본래 예의지국으로 법과 강령이 당당하고 의관이 빈빈(彬彬)한 지가 500년이 됩니다. 아! 세월이 흘러내려 국보(國步)가 간난(艱難)하여 아버지도 없고 임금도 없이 여기는 무리들이 일진회를 방자하여 이내 오합지색으로 감히 위세를 부리는 짓을 해서 삭발하고 변복하여 상심(常心)을 현혹하고 평민들을 늑삭(勒削)하며 심지어 정부를 비방하는데 이르고, 부군(府郡)을 능욕하고 법과 강령을 멸역(滅戮)함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무리들을 배척하기 위해 바야흐로 창의하고자 하는 뜻으로 사의(思義)가 이처럼 신중합니다.”¹³⁾

그러나 삭발과 흑색 의복 강제에 반발하여 일어난 이 운동은 실패하였

다. 헌병 30명이 전주부에 들어가 의병소와 일진회소를 회유하며 서로 싸우지 말고 돌아가 생업을 힘쓰도록 하였다. 이에 의병들이 해산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헌병소에서 의병 장두(狀頭) 8인을 잡아가자 다시 모였다. 일진회 두령 윤두병(尹斗秉)도 100여 명의 회원을 이끌고 전주부를 점령하여 일진회 반대운동을 주도하던 자를 잡아 가두었다. 일진회와 더불어 진보회(進步會)도 이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벌였음은 그의 일기를 통해 알 수 있다.

일진회원의 재물 요구도 빈번하였다. 1905년 7월 26일 태인 사는 일진회원 임량숙(林良淑) 등 3인이 부안에 와서 사무를 보면서 재물을 요청하기에 가난하고 비루한 고을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고 하자 답도 없이 곧바로 떠났다고 한다. 같은 달 28일 임실의 일진회원 오일환(吳一煥)이 인구와 무망진결(無亡陳結)을 성책(成冊)하는 지가(紙價)의 일로 왔기에 1냥 5전을 지급하였다고 한다. 1906년 2월 2일에는 선운동에 사는 이정백(李正伯)의 과부 며느리 양씨(梁氏)에게 일진회원들이 음행하다는 헛소문을 내고 행패를 부리며 금품을 요구하자, 양씨가 관정에 원통함을 부르짖고 칼로 자결한 일도 있었다. 같은 달 6일에는 일진회원 김재섭(金在燮)이 와서 구걸하기에 쌀 3되를 주기도 하였다. 이 같은 결과 그달 30일에는 일진회원이라고 칭하면서 토색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자를 보고하라는 관의 명령이 내려졌다고 한다.

1905년 8월 27일 자 일기에서 기행현은 “일본과 러시아가 서로 전쟁하다가 영영 그만두고 떠나가고, 일본은 미국(尾國)에게 5만원을 뇌물로 주

13 『鴻齋日記』, 1905년 2월 18일 자.

고 강화를 청했다”며 『포츠머스강화조약』의 사실을 적고 있다. 또한 11월 22일에는 “박제순(朴濟淳; 朴齊純의 오기)이 일을 맡아서 권한이 막중하다고 한다”는 내용과, 26일 “왜인 이등방문(二登方文, 이등박문[伊藤博文]의 오기)·장곡천(長谷天; 長谷川의 오기)이 항복하는 문서를 빼앗아 바치고 전하는 거처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여 을사늑약의 사실이 부안에도 전파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기행현은 러일전쟁 시기 『한일의정서』 체결의 당사자이자 이른바 ‘을사오적’의 한 명인 외부대신 이지용(李址鎔)에 대한 의기(義妓) 산홍(山紅)의 수청 거절 일화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영남 진주의 기생 산홍(山紅)이 침선비(針線婢)로 상경하였다. 이지용은 오적의 수장인데 연회가 끝난 후에 압박하고자 하였으나 산홍이 들어주지 않았다. 지용이 무슨 까닭으로 수청을 듣지 않느냐고 묻자 산홍이 답하기를 ‘차라리 우리나라 도적을 위해서는 수청을 들겠지만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에게 수청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였다.”¹⁴

이와 동일한 내용은 황현(黃玗)의 『매천야록(梅泉野錄)』에도 “진주 기생 산홍은 얼굴이 아름답고 서예도 잘하였다. 이때 이지용이 그를 불러 첩으로 삼으려고 하자 산홍은 사양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대감을 5적의 우두머리라고 하는데, 첩이 비록 천한 기생이긴 하지만 자유롭게 사는 사람인데 어찌 역적의 첩이 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에 이지용이 크게 노하여 산홍을 때렸다”¹⁵라고 기록되어 있다.

14 『鴻齋日記』, 1906년 11월 19일 자.

기행현은 고종의 강제퇴위와 『정미7조약』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1907년 6월 10일 나라에 큰 변이 있었는데, 역신(逆臣) 박영효(朴永孝)가 영의정이 되고, 왜인(倭人) 이등박문(伊藤博文)이 섭정 자리에 앉아 군왕을 협박하여 옥쇄를 탈취하고 태자에게 전위하라고 권했다는 것이다. 또한 면장을 통해 본 관청의 첩문을 통해 황태자 전하의 대리조칙이 이달 19일에 반포되자 백성들이 의심을 품어 인심이 동요하고 떠도는 말이 퍼졌다고 한다. 지역 주민에 대한 효유문 조칙도 소개하였다. 그 내용은 “이달(7월) 2일 내각총리대신이 조칙을 공경히 받들었다. 개원(改元) 연호는 융희(隆熙) 2자를 쓰고, 태황제의 궁호는 덕수(德壽)이고, 부호(府號)는 승녕(承寧)으로 반포 시행하니 일반 인민은 잘 알 것”과 부안군 분파소 주임 순검 신치희의 고시에, “조칙으로 효유하셨으니, 지금 이후로 내외국 신문 지상에 게재된 무엄하고 터무니없는 소문은 단연코 믿지도 듣지도 말고 혹시 거짓말을 퍼뜨려 인심을 선동함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이후 1908년 8월부터 9월 사이에는 신임 황제 순종 즉위식을 즈음하여 단발령을 시행하라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명의의 칙령이 발령되었다. 이에 따라 “군 경내는 지난날 관직을 역임한 사람의 단발 여부를 하나도 빠짐없이 빠른 시일 안에 성책하고 혹 감추고 현록(懸錄)하지 않고, 조칙이 내렸는데도 단발하지 않으면 실로 신민의 도리가 아니니 조관(朝官)의 거주지·성명·연령 및 단발 여부에 대한 형지(形止, 전말을 말함)를 성책하여 보고하라”라는 부안군수 박일현의 명령이 주민들에게 하달되었

15 黃玪, 『梅泉野錄』 제5권, 光武 10년 丙午, 16. ‘진주 기생 山紅의 義氣’.

다. 이러한 삭발령에 따라 부안 읍내 수리(首吏) 신동석(辛東錫), 김영욱(金永旭), 김시욱(金時旭)은 모두 삭발하였고, 간재(艮齋) 전우(田愚)는 왕등도(王登島)로 도피했다고 기록하였다. 『정미조약』 이후 이 같은 상황을 그는 ‘나라가 망한 것’으로 존평하였다. 예컨대 같은 해 11월 16일 자 “경성 사람 안병일(安秉一)을 만나 함께 잤는데, 지난해 6월 이래로 대황제의 안위존망과 망국(亡國)의 형편을 이제야 자세히 듣게 되었다”라는 일기 기록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1910년 8월 29일 강제병합 직후에는 일본과 합국(合國)한 뒤에 의사(義士)가 많이 죽었는데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은 약을 마시고 자결하였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다고 적었다.

2) 일제의 한국 토지 점탈

러시아와의 전쟁 과정에서 영국과 미국 등 서구열강과 조약을 맺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장을 마련해 가던 일본은 전승 이후부터 노골적으로 한국의 각종 권한을 제약하고 식민지화를 위한 작업을 추진하였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고 1907년 정미7조약으로 고종의 강제 퇴위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나라의 형편은 준 식민지 상태로 전락하였다. 그 여파는 기행현의 거주지인 전라도 부안지방까지 파급되었다. 이 지역은 호남평야가 인접한 조선 곡창지대에 해당하는데 국권이 형해화되는 과정에서 일본인들의 토지점탈과 식민지 농업기반의 거점이 되었던 것이다.

1909년 윤2월 23일 자 일기에 따르면, 일본 승려[倭僧] 쇼우카 키오토코(松花木男)가 일본인을 보내 변산을 조사 검색하기 위해 변산 동화동(桐花洞)에 들어왔고, 선산이 있는 사람은 각각 그 자손들이 문축(文祝)

을 가지고 와서 대기했다고 한다. 그런데 기행현은 자신의 선산 토지문서는 이미 잿더미가 되었고, 조사 검색하는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버려 그를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1910년 3월 18일 자 일기에 “무신[1908년] 난리는 웬 난리? 기유[1909년] 생난리에 큰 개 작은 개가 시냇[1911: 신해년]가에 드러누워 임자[1912년]를 기다리네[戊申亂離 何亂離 己酉生亂離 大犬小犬 辛亥過臥待壬子]”라는 당시 회자되고 있던 동요(童謠) 하나를 소개하고 있다. 친구 김국필과 함께 대화하던 중에 “국가의 일에 미치니 한심하고 안타까웠다”라고 토로하였다. 또한 종묘와 신구 대궐을 일본인이 매입하여 부수니, 경성에는 땀값이 산처럼 쌓여 값이 매우 싸다며 무너지는 조선 왕실과 망국적 사태를 우려하였다. 기행현은 8월 4일, “대한 황제 폐하가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위하고 전권은 내각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이 맡는다”라는 대한제국의 권리를 일본에 양위하는 조칙을 받아 보게 되었다. 또한 같은 달 19일에는 “모든 관리와 유사(有司)들은 짐의 뜻을 본받아 시행과 설립에 종사하여 적당히 늦출 때는 늦추고, 급하게 할 때는 급하게 하여 못 서민들로 하여금 영원히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의 경복(慶福)을 누리게 하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의 조선어로 번역한 명치(明治) 43년[1910] 8월 29일 자 일본 황실령(皇室令) 『조서유고칙령(詔書諭告勅令)』을 보았다.

8월 24일에는 “이번에 일본과 한국이 합방(合邦)하니 서로 축하하는 의미로 이달 30일에 와서 참석하라”라는 간친회(懸親會) 발기소(發起所)의 문자를 받기도 하였다. 29일에는 간친회에 들어가는 비용은 참석·불참을 막론하고 60전씩 각자 의연금을 내야 했기 때문에 발기소의 공함(公函)이 도착하자 그는 돈 3냥을 지불하였다. 강제 병합 직후인 9월 9일

에는 성 위에 올라가 일본인 관광객 50여 명이 도착한 것을 보았는데, 뒤에 들으니 진신과 사람을 비롯하여 수백 명이 환영하였다고 한다. 10월 1일 이날은 일본 황제의 생일(메이지[明治]의 생일인 양력 11월 3일을 말함)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1911년 일기에서는 일본인의 토지 점탈과 그들의 소작인과 마름 고용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그해 1월 18일 자에는 일본인이 42,300여 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군청에서 그 평수가 많아 의심스러우므로 돌려보낸다는 공함 내용을 적고 있다. 같은 달 30일에는 일본인 미야케(三宅)의 논 7두락을 강용묵(姜用默)이 소작[時作]하는 일에 관한 입증표를 면장소에 써 주기도 하였다. 일본인의 토지매입도 거론하였다. 즉, 3월 13일일 자에는 고잔(古棧)에 사는 일본인의 논 마름 유봉경(柳鳳卿)이 마을 앞들에 있는 오병엽(吳炳燁)의 논 81두락을 6,500냥에 방매하여 일본인의 논으로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한다.

기행현의 아들도 일본인의 논을 소작하였는데, 도마름[都畝音] 신성언(辛成彦)의 집에 가서 전처럼 짓기로 하고 왔다는 것이다. 그 또한 일본인 후지모토(藤本) 합자회사의 논을 소작하였다. 이 농업회사에서는 소작인들에게 맹약증(小作人盟約證)을 작성하여 주었던 사실도 알 수 있다. 부안 지역에서는 내수사(內需司)의 논을 일본인이 매입하여 소작권을 변경하는 일도 있었다. 같은 해 5월 5일 일본인의 광고(廣告)에, “전에 시작[時作]하던 사람으로 다시 정한다”라고 했으므로 소작인이 낸 돈 36냥 5전은 되돌려주고, 이전 소작인이 도로 경작하기로 한다는 사실을 문서로 작성하고, “가을이 오면 내년 농사지를 논 10여 두락을 얻어주겠다”라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주었다는 것이다. 일본인들이 내수사의 논 소작인들을 불러 농사를 권면하면서, “부지런히 심고 김매면 가을에 저절로

보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고 한다. 이로 볼 때 부안 지역의 일본인 토지매입과 소작권 변경은 국망 직후부터 본격화되었고 식민지 농업경영으로 인한 여파는 농사로 생업을 이어가고 있던 농촌 유생 기행현에게도 직접 영향을 주었던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다.

5. 맺음말

전라도 부안에 거주하였던 농촌지식인 기행현은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 장기간에 걸쳐 직접 경험하거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탐문한 내용을 일기로 작성하였다. 그가 살던 시기는 개항 이후 봉건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이행하는 기간이었다. 제국주의 국제질서와 관련하여 이 시기 정치사회의 변동양상은 어떤 시기보다도 급격하게 전개되었다. 일기의 최종 부분은 그의 중년과 만년에 해당하는 근대화와 정치 사회적 격변과 이후 식민지로의 진행 과정이기도 하였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이후 크게는 조선사회, 작게는 부안의 변화양상과 관련하여 기행현이 『홍재일기』를 통해 서술한 내용의 골자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이후에도 동학농민군 잔여 세력의 활동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들의 색출과 토벌을 위해 부안 지역에도 유흥소가 설치되었다. 농민군 체포와 처단은 1895년부터 1904년 러일전쟁 시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기행현은 패잔 농민군도 ‘구 동학도’와 ‘신 동학도’로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의 색출을 위해 전라도 각 군과 읍에는 오가작통제와 사상통제를 위한 향약이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다. 특히 개항 이후 일상화되었던 오가작통제는

러일전쟁 시기에 이르기까지도 부안 지역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의 작통제는 각 마을에서 매달 2회에 걸쳐 시행하였는데 주민들은 각기 호신용 무기를 소지하고 훈집소에 모여 점검하는 형식인데 그 내용을 두 권의 책으로 작성하여 비치해두었다.

기행현은 여타 변혁운동에 대해서도 일기에 언급하였다. 그는 경주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민란 소식을 들었고, 대한제국 시기 초반 제1, 2차 제주민란과 서울의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활동과 함께 특히 전라도 정읍과 고창, 흥덕, 김제 등 주변 지역에서 크게 활동하던 영학당 관련 내용도 일기에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당시 정부에서는 영학당을 ‘서양 종교를 빙자하여 침학하고 폐단을 일으키는 무리’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는 영학을 동학의 변형으로 평가하면서도 영학, 동학, 서학 등으로 엄밀하게 구분하여 이해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거주지인 부안 지역은 영학이 없어 태평하다며 안도하고 있었다.

또한 일본의 조선 ‘보호국화’ 과정에서 왕후 민씨가 살해되는 을미사변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 여파는 몇 달 후 부안 지역에서도 반일 의병으로 나타났고 부안 의병의 창의문 전문과 의병장들의 이름을 그는 일기에 소개하였다. 이듬해부터는 전국적인 의병봉기가 시작되었고, ‘의병이 하나같이 엄숙하였다’라는 나주 아동들의 평가도 소개하였다. 그의 가문인 전라도 기씨 문중에서는 참봉 기우만을 필두로 하여 대대적으로 의병에 참여하였고 이에 대한 감영군의 보복으로 ‘멸문의 화’를 당할 것을 우려하였다. 이 같은 을미의병에 대해 그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지만, 반면 지방관리를 살해한 충청도 의병장 유인석은 역적에 비유하면서 혹평하였다.

이후 러일전쟁과 일본이 승리하는 과정에서 일본군의 지역 주민과 물

자 동원, 일본인의 토지 점탈 문제를 서술하고 있다. 그는 “인부를 모집하는 일은 반드시 민심을 크게 어지럽히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한 바 있었다. 러일전쟁은 일본이 승리하였고 이후 을사늑약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등 국권이 형해화되어 가자 민영환과 홍만식, 조병세 등 우국지사들이 자결 순국한 사실도 일기에 적고 있다. 또한 밀아자의 글과 영국 신문, 『대한매일신보』 기사, 참관 이남규의 상소 전문을 차례로 소개하였다. 기행현은 이에 대해 별다른 논평을 하지는 않았지만 상세히 기록으로 남긴 점으로 보아 그 역시 국권 회복을 열망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을사늑약 이전부터 태인은 물론 전국에서 의병이 봉기하였다. 그는 면암 최익현이 의병을 일으키고 통문을 돌린 이후부터 경상도 동래와 안동 의병, 충청도 홍주 의병, 전라도 태인과 정읍, 장성, 광주, 순창, 전주의 의병봉기 내용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앞선 을미의병 당시와는 달리 이 시기부터 그의 인식에서는 의병과 화적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었다. 그는 일본인 처단은 긍정적으로 보았지만 지방관 처단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것도 1908년부터는 전에 비해서도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자칭 의병’의 폐해와 면회(面會) 개최 등을 통한 지역민의 대응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의병의 지속적인 금전 징수는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는데, 그는 의병의 군수품 징발을 ‘토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었다. 1909년부터는 부안 지역의 본격화된 정부군의 가택수색과 의병색출 관련 내용도 기록하였다.

대한제국 멸망 직전에는 일진회 등 친일 사회단체가 전국에서 활동하였는데 이 단체의 지회는 그가 사는 부안에까지 진출하였다. 기행현의 일기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주민들의 일진회 지회에 대한 거부 운동과

주민들과의 갈등, 정부의 대응 등을 여러 각도에서 소개한 것이다. 일진 회원들의 토색과 빈번한 금품 요구도 있었다. 진보회와 주민들과의 갈등도 기록하였다. 또한 기행현은 을사늑약의 사실이 부안에 전파된 사실을 기록하면서 ‘을사오적’의 한 명인 외무대신 이지용과 기생 산홍의 수청 거절에 관한 일화를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어 고종의 강제퇴위와 군대해산에 관한 정미조약, 황제의 대리 조칙, 지역 주민에 대한 효유문 조칙 전문, 단발령 시행, 기우만의 가결 등도 일기에 남겼다. 그는 이 같은 일련의 상황을 ‘나라가 망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국망 직전의 일기에서 그는 “무신 난리는 웬 난리? 기유 생난리에 큰 개 작은 개가 시냇가에 드러누워 임자를 기다리네”라는 당시 회자되던 동요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일본인의 왕궁 매입과 철거 등을 통해 무너지는 조선 왕실과 망국적 사태를 우려하면서 일본에게 대한제국의 권리를 양위하는 조칙 번역문과 칙령을 보았다. 한편 호남의 곡창지대인 부안 지역은 이 시기부터 일본인들의 토지 점탈과 식민지 농업기반의 거점이 되었다. 일기에 그는 일본인의 부안 지역 토지 점탈과 그들의 소작인과 마름 고용의 사례를 적고 있다. 그의 아들도 일본인의 논을, 그 역시 후지모토 합자회사의 논을 소작하였다. 부안 지역의 일본인의 토지 매입과 그로 인한 소작권 변경은 일제의 대한제국 강제 병합 직후부터 본격화되었고 그 여파는 기행현 자신에게도 피부적으로 다가오게 되었던 것이다.

투고일 : 2023.10.31.

심사일 : 2023.11.14.

게재확정일 : 2023.11.16.

참고문헌

- 이영호, 『동학과 농민전쟁』, 해안, 2004.
- 김종준, 『일진회의 문명개화론과 친일활동』, 신구문화사, 2010.
-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국역) 홍재일기(상·하)』, 문화발전소, 2022.
- 조재곤, 「러일전쟁 이후 의병탄압과 협력자들」 『한국학논총』 37, 2012.
- 김철배, 「전라도 부안 土族 奇幸鉉의 鴻齋日記와 19세기 후반기 부안의 경제사정」 『전북사학』 46, 2015.
- 김영준, 「19세기 후반 전라도 부안현 호구 및 결가 조사의 실제적 양상-남하면 훈집(訓執) 기행현의 홍재일기(鴻齋日記)를 중심으로-」 『전북사학』 53, 2018.
- 이선아, 「19세기 부안 儒生 奇幸鉉의 鴻齋日記와 동학농민혁명의 실상」 『동학학보』 50, 2019.
- _____, 「19세기 부안 유생 기행현의 홍재일기와 秘訣의 유행」 『동학학보』 65, 2023.

홍재일기로 본 동학농민혁명 이후의 사회변동

조재곤(서강대학교 학술연구교수)

전라도 부안에 거주하였던 농촌지식인 기행현은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 장기간에 걸쳐 직접 경험하거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탐문한 내용을 일기로 작성하였다. 그가 살던 시기는 개항 이후 봉건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기간이었다. 제국주의 국제질서와 관련하여 이 시기 정치사회의 변동양상은 어떤 시기보다도 급격하게 전개되었다. 일기의 최종 부분은 그의 중년과 만년에 해당하는 근대화와 정치 사회적 격변과 이후 식민지로의 진행 과정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그는 『홍재일기』라는 비망록으로 남겼다. 이 글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이후 일제 강점에 이르는 기간 한국 근대의 정치 사회변동에 초점을 맞추어 내용을 소개 분석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학농민혁명 이후 변혁운동의 추이와 ‘동비여당’ 색출과 오가작통제 시행, 을미사변과 의병봉기, 을사늑약과 순국 자결, 을사·정미의병의 동향, 일진회와 친일 세력, 일제의 식민농업 기반조성 관련 등이다.

주제어 : 기행현, 홍재일기, 부안, 동학농민혁명, 의병

Abstract

Social changes after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s viewed in the of Hongjae Diary

Cho, Jae-Gon(Professor of Academic Research
at Sogang University)

Ki Haeng-hyun, a rural intellectual who lived in Buan, Jeolla-do, wrote a diary of experiences or reports from people around him from the mid-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His life was a period of transition from feudal society to modern society after opening the port. In relation to the imperial international order, the pattern of changes in political society during this period developed more rapidly than at any time. The final part of the diary was also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political and social upheaval, which corresponded to his middle and later years, and later to the colony. He left this situation as a memorandum of 『Hongjae Diary』. This article introduces and analyzes the contents, focusing on the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of modern Korea during the period from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1894 to the Japanese occupation. The main contents are as follows. After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e progress of the transformation movement, the search for the peasant army and the implementation of regional control, the murder of the queen and the righteous army resistance, the Japan-Korea Treaty of 1905 and self-determination of patriots, the trend of righteous army in the second half, pro-Japanese groups and their forces, and the establishment of a colonial agricultural foundation of Japan.

key word : Ki Haeng-hyun, Hongjae Diary, Buan, Donghak Peasant
Revolution, Righteous Army